

# 이낙연 “제2의 DJ 필요”

〈전 국무총리〉

“민주 혁신안 엉뚱한 곳 해매... 도덕적 권위 잃은 건 뼈아파  
당 혁신 출발선은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해야”  
평화·동맹·반도·비적대 등 한국의 4가지 숙명도 언급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16일 “민주당이 (여러모로) 길을 잃고 있는 것 같다”며 “제2의 DJ(김대중 전 대통령) 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주당다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며 “도덕성과 유능함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에 유학하며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는 책을 펴낸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문제를 언급하며 “DJ시대로의 회귀를 수차례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對) 중국, 대(對)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인 18일에는 김 전 대통령이 탄생한 신안 하의도를 방문 신안군이 주최하는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뉴시스

## 도내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민주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읍·고창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면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간 제21대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재석율을 비롯해 법안 발의 및 통과, 법안표결 참여,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21대 국회 제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여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제21대 국회 3



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3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윤 의원은 총 92.73점을 받아 전북 국회의원 중 최고의 점수를 받았고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는 네 번째로 높게 평가됐다. /정음=김대환 기자

### 민주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인무주정수군, 재선)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16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주관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연)은 “안호영 의원이 11대 국회 3개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의정종합대상인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11대 국회 3년간 발의



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 통과율이 60%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높은 통과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정읍시의회 의회운영위

### 육정호 상수도 취수원 현장 방문

정읍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지난 14일 최근 장마로 수면 위로 많은 부유물과 녹조 현상이 발생한 신내면 육정호 상수도 취수원 일대 현장을 방문하여 정읍시로부터 상황을 설명받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재 육정호의 저수율은 60%이나 최근 장마와 태풍으로 수면 위의 부유물과 녹조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이 상수도 취수원인 육정호의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다.

최근 녹조의 원인은 이상 고온과 장마철 호우로 인해 하천변 토사와 초목류 등의 부유물이 육정호 내 유입되면서 부영양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으며, 현장에서 의원들은 현재 녹조의 발생 정도,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정읍시의 대책과 수면 위 부유물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길 위원장은 녹조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수면 위 부유물의 신속한 제거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육정호 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尹, 좌파우파 거론... 국민통합에 부적절”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잼버리 파행, 전북도보다 중앙정부가 더 책임져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가 거의 50대 50으로 양분돼있다”며 “일반국민들이 아닌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데 정치가 융합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상대를 그런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공산체제주의’를 선택했으며 그 결과 우리는 놀랄 만한 번영을 북한은 최악의 궁핍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나라에는 공산체제주의를 맹목하는 이들이 진보로 위장해 사회를



교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북쪽에 굴복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남한에 그런 세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극소수에 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금 GDP가 3만불이 넘는 선진국인데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으로 좌파나 우파나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꾸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자유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하는 정치행위는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두고 전북도와 정부간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 이 잼버리 문제는 전라북도나 중앙정부나 똑같이 공동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김시원의 감사가 잼버리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더 져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에 대해 특별하게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부가 수립된지 벌써 1년반이 됐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면 과거 정권에 미루는 건 정치적으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 16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 민주 전북도당, 대책위 구성... “尹정부, 국민 목소리 외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 발대식을 했다.

16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전북도당 대책위원장인 윤준병 의원과 우원식 중앙당 총괄대 책위원장을 비롯해 이병철 정주를 지역위원장,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등 지방위원들과 당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준병 전북도당 대책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전세계의 해양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큰 재앙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이를 옹호하며

국민들의 반대에도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인한 대한민국 어민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는 상황이고 우리의 식탁에는 원전 오염수에서 서식한 생선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과대망각하며 민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강연에 나선 우원식 중앙당 총괄대책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원전 오염수의 해

양투기로 인한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의 상층부에 있는 물만 채취해 검사했고 하층부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의뢰한 검사 방식을 IAEA가 받아들여 진행한 일방적인 검사 결과를 윤석열 정권이 동조하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는 앞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인의 안전과 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

##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담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방법**

- 대면납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신분증 지참	기탁서 작성	기부(현금 또는 카드)	담례품 선택 및 배송
--------	--------	--------------	-------------
- 인터넷 납부(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기부자 인증 (거주지·한도 확인)	기부금 결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담례품 선택 (기부액의 30%)	담례품 배송 (배송지 선택, 배송내역 조회)
--------------------	----------------------	-------------------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담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순창고추장, 장내미생물검사키트, 벌초대행서비스 이용권 등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

**기부문의**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 063)650-1592